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0 겨울 (통권 제10호)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사색을 위한 인용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1929-1968)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바마 주에서, 흑인어린이들이 백인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돌우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바다출판사)에서

□ 同門斷想 1 □

정직하게 사는 삶 - 네 분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



위 정 식

과거의 역사와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쓰고 선포하는 것이 현재 목사인 저의 본연의 임무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동문회로부터 원고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문득 옛 선생님들의 기억이 다시금 불일 듯 떠올랐습니다. 제가 송실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은 안병욱 선생님, 최명관 선생님, 조요한 선생님, 고범서 선생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이 네 분 선생님들의 각각 지니고 있는 학문과 인격 그리고 외모는 모두 흠모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쫓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철학하는 학문의 방법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걷는 모습, 심지어 음성까지도 닮아가려고 애썼던 기억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대학 1학년 때의 일입니다. 1972년 2학기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분명치 않습니 다만 하여튼 시험기간이었습니다. 네 분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신 A선생님의 과목이었습니다. 물론 시험 감독도 A선생님이셨습니다. A선생님은 시험시간에 신문을 보셨고 저희들은 열심히 시험 답안지에 부지런히 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한 학생이 불의한 행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선생님을 크게 노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A선생님의 노함은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늘 되새기곤 합니다. 철학하는 사람의 삶은 늘 정직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켜보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명제 앞에 나의 경박한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네 분 선생님의 철학하는 학문적 태도와 그분들의 인격에 대한 나의 배은망덕함과 변덕스러움 때문에 삶의 좋은 목적을 수행 (8면에 계속)

□ 同門斷想 2 □

대학시절에 대한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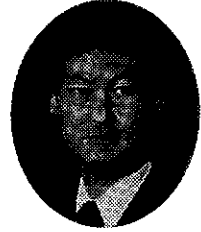
홍 성 하

새 천년, 새 세기의 흥분과 기대로 부풀었던 2000년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다. 언제나 반복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만감이 교차되고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진다. 사실 올해도 작년과 비교하여 보면 별로 뚜렷하게 변화도 없는 생활을 했건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완수하지 못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 미래에 대한 큰 기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의식이 미래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가 더욱 현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었을까? 연말이 다가 오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져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찾기' 또는 '친구나 동기 찾기'일 것이다. 특히 이런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모 사이트는 회원이 무려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친구나 동문, 은사 등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의 의미, 추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필자도 이런 사이트를 통해 까맣게 잊었던 반가운 친구들을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름으로라도 사이버 공간상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필자에게는 적어도 이러한 기회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20대나 30대에 비해 40대는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궁금한 친구들이나 동문들의 소식을 많이 접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정보화사회가 주는 매력은 분명 크다고 할

비단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요즘 20년이 넘도록 소식이 끊겼던 대학 동기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미 모든 것이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 같기도 한데 이토록 한번 맺은 인연의 끈은 질긴가 보다. 아니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과거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것일까? 비록 전화로라도 대학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20년 전의 대학시절에 대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열성적으로 강의를 하시던 은사님들, 개성이 강했던 동기들의 모습들, 이미 오래 전에 없어진 추억의 문리대 건물과 담쟁이 넝쿨 등이 생생하게 눈앞에 어른거린다. 아마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7면 아래로 계속)

칼빈과 한국장로교회의 성찬 성례전 이해와 실제



김 충 환

성찬성례전은 세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영속되도록 교회에 주신 성례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성찬성례전은 초대 교회로부터 예배의 중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의 예전은 다락방 예전이라고 부르는 성찬성례전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성찬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도 이 성찬성례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찬성례전은 한국의 장로교회-소위 칼빈을 따른다고 하는-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고 등한시되어져 왔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우선 성찬성례전의 성서적 고찰과 종교개혁 시대의 성찬성례전 이해를 다뤄 보고자 한다. 이후 칼빈의 성찬성례전 이해와 한국장로교 성찬성례전에 대해 약술한다.

1. 성찬성례전에 대한 성서적 고찰

성찬성례전에 대한 성서적 고찰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연구되어 오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전 (Sakrament)이 '유월절 식사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이다. 마가를 비롯하여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식사는 바로 '유월절 식사이었다'라고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기록과 함께 지속되어 온 성찬성례전의 전통은 일반적으로 유월절식사를 성찬성례전의 근원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 왔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과 성찬성례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론들이 대두하였다. 이중의 하나가 키두시식사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이나 축제날에 전통적으로 가졌던 식탁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도 Dome G. Dix, H. Lietzmann, K. G. Goetz 등은 유대교의 우정의 식사였던 Habhuramahl로 보고 있다. K. G. Kuhn 등은 에센공동체식사(Essenermah)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성찬성례전의 기원은 유월절 식사이고 예수께서 최후로 지켰으며 여기서 새로운 성찬성례전으로 제정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어느 한 견해로 확정되어져야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형태의 식탁을 이용했는지 간에 분명히 새로운

성례전으로서 성찬성례전을 제정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월절의 전통에서 예수의 성찬성례전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2. 종교 개혁시대의 성찬성례전 이해

예수에서 시작된 성찬성례전은 초대 교회를 지나 종교개혁 전까지는 그리 큰 신학적 문제없이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을 발단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혁자와의 사이에서 성찬성례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성찬성례전의 현장에 예수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이었다.

A. 로마 카톨릭교회

로마 카톨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성찬성례전에 대한 입장은 집례자인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대한 축성(Konsekration)을 하는 순간에 이 빵과 포도주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해석 - 즉 화체설(Transsubstantiationslehre) - 이다. 로마교회는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믿게 되었고 변할 수 없는 교리로서 오랫동안 지속시켜 왔기에 지금도 동-서방교회에 정착되어 있다. 이 화체설은 1215년 이노센스(Innozenz) 3세 교황 밑에서 행해진 공의회에서 확고한 교리로 확정되었다. 이 화체설은 1551년 10월 11일 트렌트 공의회 13회기의 제 4장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공포되었다. 트렌트 공의회가 재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에 관한 가르침을 폭해하는 해석에서 지키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그것은 루터가 명백히 실제변화라는 가르침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

B. 루터의 성찬성례전 이해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의 대부분은 성찬이 희생 제사(Opfer)라는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몹시 반대하였다. 루터는 성찬성례전이 희생 제사도 인간이 행하는 선업(善業)도 아니고 만찬이며, 그리스도가 이 만찬을 제정한 것은 믿는 자를 위로하는 신앙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라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찬에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성서의 말씀을 카톨릭과 같이 문자대로 믿었으나 카톨릭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성찬 시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소유한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무소부재를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의 의미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 영광을 나눠 가짐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 역시 나눠 가지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에 그리스도도 역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다.

C. 쾰빙글리의 성찬성례전 이해

쾨빙글리의 성찬론은 기념설 또는 상징설로 불리워진다. 곧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에서 드러진 몸과 피의 표징들이다. 이 표징들은 몸과 피가 이렇게 드러진다는 것을 상징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회상시켜준다는 것이다.” 그의 성찬론의 중점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기념, 구속의 감사, 영적 연합에 있다.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부인하고 빵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견지하였으나,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부인하고, 믿음 안에서 영적 참여를 가르쳤다.

3. 칼빈의 성찬성례전 이해와 실제

종교개혁의 제 2세대인 칼빈의 성찬론은 다른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의 비성서적인 성찬론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고 루터와 쾨빙글리의 성찬 논쟁을 거치면서 양자를 조화하려는 마틴 부처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영적 임재설”로 정착하게 되었다. 먼저 칼빈은 성례전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성례는 약속에 대한 인장이며, 언약의 표징이다. 그는 로마 카톨릭과는 달리 성례전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가야 한다고 한다. 칼빈은 “설교를 들을 때 비로소 보이는 표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고 복음이 선행하지 않는 성례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성례전에는 반드시 성령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성례전이 정말로 자체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내적 선생인 성령이 와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며, 이 성례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 없는 성례전은 아무리 거창하게 거행되어도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빵과 포도주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이며, 상징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계속해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상징하는 표징”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서 빵을 받을 때 빵이 신체에 영양과 생명을 주어 신체를 유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혼에 힘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이다. 한편 그는 성례를 마술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관계없이 받아들인 성례는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례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칼빈은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과 그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받는다”고 표현한다. 또한 성령이 동반하지 않으면 성례는 유익이 없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며, 성례가 우리 사이에서 자리를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믿음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례를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영의 양식이 되도록 결합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칼빈은 불신자의 성찬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적으로 임재 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따라서 화체설을 반대하며, 쯔빙글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므로 그리스도의 편재설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찬성례전에 임재 함을 말한다. 칼빈은 "성찬을 자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4. 한국 장로교회의 성찬성례전의 이해와 실제

한국의 장로교예배는 지나친 설교 위주의 예배이다. 이에 대한 한 이유로는 선교사들의 성서와 말씀 선포에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성례전에 대한 이해 결여와 성찬성례전 예배를 포함한 기타 예배에서 예전의 도외시 현상, 그 예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예식서에는 성찬성례전을 자주 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년에 2-4회 행하고 있다. 이로서 초대교회로부터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찬성례전이 한국교회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되고 있다.

5. 나가는 말: 이런 한국교회의 성찬성례전 예배의 현실을 위해 리마(Lima) 문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1529년 마부룩회의에서 의견 합일을 보지 못하던 각 교파들은 현대에 와서 오늘의 기독교가 공동으로 고백해야 할 성찬성례전의 신학적 견해들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중 중요한 만남이 1982년 페루 Lima에서 채택되어진 "세례 · 성찬 · 사역"이다. 이 문서에서 성찬성례전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1) 성부에 대한 감사 2)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 또는 기념 3) 성령의 초대 4) 성도의 교제 5)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탁.

이 Lima 문서와 그 예식서는 각 교파간의 신학적 이견을 좁히고 하나의 예식서를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장로교 성찬성례전이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53회 ·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3면에서 계속) 기억 속에 잠시 맡겨 놓고 살아가는 모양이다.

필자도 매일 20년 전의 내 모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살아간다.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대학시절에 들었던 은사님들의 강의내용을 필자가 인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가르침들을 현재에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과거를 관통하고 있는 전통의 의미라 생각한다. 전통은 시간의 제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속에서 사라진 것이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재차 현재에서 되살아나고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간다. 그러므로 오늘 무심히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을 요하는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53회 · 전주우석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2면에서 계속) 해야 하는 아름답고 선한 나의 길가에 태만함, 그리고 정신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때로는 이기적 욕심으로 인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망각하여 흐르는 물처럼 푸른 산처럼 사는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 분 선생님이 그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지요. 성경말씀이 또 다시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앙심에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13면에서 계속) 생각을 해, 그러기 위해서라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철학만을 공부하지 말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것을 섭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술 먹어야지 말이 많아지는데 다음주에 술 자리에서 다시 할까?”라는 유쾌한 농담으로 선배와의 인터뷰를 마쳤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명색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선배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선배가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로 조작해서 창피 당하는 건 아닌지, 철학을 공부했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 조잡한 정리에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아무려면 어쩐가. 아무튼 논리는 없이 목소리만 크면 최고가 되어버리는 분위기에 익숙하다가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선배와의 인터뷰는 즐거운 일이었으며 또 많은 걸 느끼게 해주었다.

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 이 크나큰 사랑의 말씀 앞에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지금 네 분 선생님 곁으로 달려갑니다. 네 분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정녕 그리워지고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48회 · 반포성결교회 담임목사)

● ● 알 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 회 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 체 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김기순)

□ 同門을 찾아서 4 □

짧은 만남 긴 이야기

— CBS 사회부 기자 임 형 섭 동문(55회)을 찾아서 —

· 인터뷰: 이성준(동문회 간사·대학원 석사과정), 김정미(학부 4학년/정리)

CBS 기자인 선배를 만날 수 있었던 건 한달째 계속된 회사 '파업' 때문이었다.

얼굴이 깨끗하고 좋아졌다는 주변 사람에게, "집에서 부담 없이 신문도 제목만 보니까 다시 머리가 깨매지더라고... 두어 달 더 쉬어야 될 거 같애"라며 가볍게 농담하고 웃었는데 기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상상할 수 있었다. 선배는 취재만 하다가 취재를 당하니까 마치 심문 당하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어색해 했다. 하지만 희끗희끗한 회색머리에 조용하면서도 논리적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예리하면서 살아있는 '눈빛'이 역시 기자라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다.

'기자'라고 하면 바바리 코드를 입고, 검은 빨데 안경에 수첩을 들고 동분서주 뛰어 다니는 도전적이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배를 만나 직업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런 저런 질문을 던졌다.

- 힘들 것 같아요. 뛰어다녀야 하니까.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고... 사회부 기자라고 들었거든요.

사회부가 쫄 재밌어요. 항상 취재를 하다가 전율을 느낄 수 있으니까. 특종을 할 때 즐겁죠. 남보다 앞서 취재할 때, 기자 사회에서는 독단 기사라고, 자기 혼자 쓰는 기사, 판 기사들을 볼 먹었다고... 그럴 때 즐겁죠. 사회부 기자 처

음엔 사건 기사를 해요. 사건 기자할 때는 거의 출퇴근 시간이 없고, 들어가야 들어가는가 하고, 다음에 환경부처 담당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해지고, 정치부 가도 마찬가지고, 새벽부터 당직자들 집에 가서 아침 얻어먹는 게 일이니까, 사실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죠.

- 지금도 사회부에 계시나요?

언론사 보면 판 데는 문화부 체육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쪽에 비중을 안 두니까 문체부라 그래서, 문화 담당을 하는데 내가 문화 담당이고, 사실 아무 것도 안 하지. 문화에 대해 모르니까. (하하)

요샌 파업이라서 딸들이랑 노노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제 한달 지났어요. 난 우리 큰딸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개 어렸을 때 돌 지나고 3살 4살 때 굉장히 바쁜데 있었어요. 거의 2년 동안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면 잘 보고, 집에서 후배들 전화 받다가 화를 내고 그런걸 봐서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지금도 내가 얼굴이 변하면 큰애는 동생 데리고 아빠 화났다고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찢리지. 내가 잘 못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자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매력이 뭐 있을까? 3D업종중의 하난데 요

새. 매력이라고는 못 느끼지만, 자기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힘인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매력적인 직업 중 하나예요. 처음 기자 생활을 했을 때, 공부한 게 그거니까 우리나라 사회 성향이 어떤지 공부를 해보자 그랬는데, 현장에서 그게



임형섭

안되더라구. 직업에 침몰하는 사람이 있고, 침몰하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침몰하는 스타일이어서. 10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불행한 일은 딱 한가지 같애. 자기가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것.

-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구체적인 경험은?

나는 특종기사를 써본 적이 없는데...(하하). 제일 기억나는 것이 내가 교육부 담당할 때 그때는 6공때였어. 6공때 각 대학 설립할 때 정치자금 만들었거든요. 뇌물 받아 가지고.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대학 정원수 굶하기 몇 학기 등록금이 정례화 되었다고 누가 제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상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더라구.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걸 좀더 제대로 취재를 해서 썼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후회스럽고... 정치부 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육부가 뇌물 사건을 일으키기에는 감시의 눈이 많아 지나가.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 언론들의 한계고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나부터도 쓸려고 해야 되고...

- 기자가 되려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가 철학과 가게 된 동기는 처음엔 우리 부

모님이 동기 부여를 했었고, 우리 집이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이들 중에 하나 목사를 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송실대 철학과를 보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 가라고 그랬는데 싫다고 도망간 게 대학원이었고, 그 반발로 기자 직업도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은행원 집안이었는데 지금도 아버님이 여든 넷인데 집에 계셔도 넥타이 매고 계시고, 그게 싫어서, 그런 직업이 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기자라는 직업이 맞을 것 같아서 했는데, 10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애.

내가 사실 학부 때 공부를 딱히 하거나 그러질 않았는데, 김선욱 선생이 열심히 했고, 나 같은 경우 1, 2학년 때 갈등에 휩싸여서 다닌 사람이었으니까. 이것저것 딴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3학년 때 철학이 뭔지 공부 좀 해보아겠다는 생각에 대학원을 갔는데, 군대에서 갈등을 많이 느꼈지. 어떻게 해야하나 26개월 동안 군대 있었다니 머리는 굳었고... 나 때 대학원 간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는 더 이상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빨리 포기해주는 것도 덕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철학과 나와서 일반 직장 시험도 봐 봤어요. 근데 철학과 출신 뽑는 곳이 없어. 그때 당시 철학과 출신 뽑는 곳이 안기부하고 삼성 그룹에서 교육 담당직원을 뽑더라고. 삼성 직원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해당 사항이 안돼. 화점이. 생각한 게 내 전공하고 가장 밀접한 게 기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꿈도 있었고, 툴툴이 공부를 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사회부 기자가 좋다고 생각해서 기자 시험을 열심히 보고

다녔지. 10년이 넘어가니까 거의 만성이 돼 가 더러고, 매몰돼버려서...

선배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단골 질문이 바로 철학과를 나와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타자의 시선을 한번쯤은 공유했을 거라는 막연한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질문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학이라는 벽 밖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 얘기들이 궁금해지는 건 여전히 '철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다르다고? 철학과 나올수록 남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야지..." 하면서 많은 얘길 해준 선배는 요새 파업 때문에 딸 돌이랑 노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했다. 두 딸을 보면서 후배들에게 말하길, 결혼하면 모든 지식이 경험적인 것이냐, 선행적인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선배는 두 딸을 보면서 경험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선행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불현듯 행동하는 거나 말을 하는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으라고 하면서 웃었다. "2년 동안 후배들 교육 담당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사건 기사를 하는데, 서울 시경 출입을 하는데 주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후배들 기사 봐 주고, 보고 받고, 아이디어를 짜고.... 사실은 기사가 어떻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 중에서 불현듯 한 가지 꼬투리 갖고 기사가 커질 수도 있거든... 난 사실 소리를 참 잘 질러요. 굉장히 다혈질이어 가지고 아직도 우리 회사 후배들 중에서 나를 보면 슬슬 피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엄격

하거든요. 나 스스로 엄격해 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다 그게 아닌가 철학과 나온 거.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는 아쉬운 게 **송실철학강좌**를 할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갈 때라고 한다. 강의를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올 시간이 안되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해야되고, 사실 철학과 출신들이 더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런 항수를 다들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직업이 그렇다 보니 동기 중에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나이 사십 되기까지는 다들 자기 앞 목표판 보고 뛰느라고, 친구들 만나고 그럴 생각들을 못한다고 했다. 요샌 여유가 생겨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자주 보지만, 30대가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선후배 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우리들의 얘기에 처음 직장생활을 할 때 자신도 선배들이 하는 얘기와 사고 방식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선배가 되어서 보니까 후배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게 갈등의 시작인 것 같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지 왜 저럴까라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고 했다.

- 옛날하고 달리 요즘 특히 '변화'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기사를 전화기 들고 전화로 불러요. 당직자들이 받아서 적고 했는데, 그러다 팩스가 나와서 팩스로 넣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컴퓨터로 기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요새 이렇게 보면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얼마나 따라 잡을 수 있나.

많이 사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회가 바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96년 내가 국제부에 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유망직종이 뭐였는지 아세요? 윤리학자! 그게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윤리적인 기준이 많이 허물어졌고, 또한 기업들의 기업윤리를 세워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도 다시 윤리를 공부해서 그쪽으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가니까. (하하)

- 그런 변화 때문에 위기 의식은 없나요?

언론이라는 게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들은 고착화 돼 있잖아요. 기사가 나올 때까지의 시스템이 고착화돼서 사회의 이익이나 정황에 따라서 버려지는 부분도 많고. 나는 그것을 보충하기 시작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터넷 신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올브라이트 장관 얘기도 같이 저녁을 먹었던 기자는 안 썼지만 '오마이 뉴스'에서 쓰기 시작해서 문제가 됐던 거구. 언제 종이 신문이 없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은 종이 신문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위기 의식은 매일 있어요. 기자 생활 10년 하고 나면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게 고갈되니까. 파업 때가 좋은 게 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책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 학부 때는 어땠나요?

나는 극우 보수 반동주의자야. (하하). 내가 입사 시험 볼 때 같이 입사한 친구들 보니까 전부 시위 경력에 녹색사업으로 끌려 갔다는 친구, 뭐 별 하나 둘 다 있더라구. 근데 그런 게 다 도움이 돼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꼬집어내려고 그러고, 논리적인

글을 쓴대던가...

워낙 나는 학교 다닐 때 딱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격증의 시대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1, 2학년 때 했나. 그때 제일 먼저 생긴 게 감정평가산데, 그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안됐지. 그때 공부한 것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돼요. 경제학이나 민법이나 그런 쪽을 공부를 했으니까. 철학과라는 놈이 딱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부기책 펴놓고 있었으니까.

- 학부 학생들한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애. 다양하게 이쪽도 기웃해 보고 저쪽도 기웃해 보고 박학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여러 모로 도움이 돼. 진짜 더 공부할꺼면 대학원 가고,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또 돌아오고... 최근의 우리나라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도 하는데, 그게 다 대학 졸업하고 석사 박사하고 강단에 서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만큼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어. 그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얼마 전 『시간의 흐름』이라는 책을 봤는데, 방송 같은 데서 정치인들 떠드는 것만 하지 말고, 시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철학자들을 불러다가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애. 이 부분은 물론 언론 스스로가 자성해야 될 것 같애.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가 얘기되고, 그런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김용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혼자 TV에 나와서 소위 말해 원맨쇼를 하잖아. 그런 식이 아니라 김용옥도 나오고, 또 그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서 서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8면에 계속)

동 문 회

I. 동문 동정

▶ **조종남** 동문(30회·명지대 교목실장) 제3회 숭실인상(베어드 교육대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12월 7일 모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있었다.

▶ **김선태** 동문(38회·실로암안과병원 원목실장) 10월 10일 모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103주년 기념식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김의원** 동문(43회·총신대 교수) 9월 26일 총신대학교 제2대 총장(역대 16대)으로 취임하였다.

▶ **배선복** 동문(53회·경희대 강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현대논리학의 입장에서 본 라이프니츠의 이진법과 역의 상징체계」가 선정되었다.

▶ 11월 24,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3회 한국 철학자연합대회에서 **배선복** 동문과 **김선욱** 동문(55회·숭실대 강사)은 각각 “개별관계의 정신적 실재의 문제”와 “자본, 문화, 판단력 - 한나 아렌트의 현대 이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박삼열** 동문(60회·관동대 겸임교수)은 연세대 김규선 박사의 논문에 대해 논평을 하였다.

▶ **심의용** 동문(62회·숭실대 강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정이천 '역전' 연구」가 선정되었다.

▶ **홍기숙** 동문(63회·파리8대학 박사과정) 9월 30일 영등포 미라보 워딩타운에서 장영진(화가) 씨와 화축을 밝혔다.

▶ **신응철** 동문(64회·수도침례신학대, 남서울대 강사) 9월 중순 『캣시어의 문화철학』을 도서출판 한울에서 출간하였다. 이 책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 **유재민** 동문(69회·서양고대철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학년도(전기) 신입생 전형에 합격하였다.

▶ **황의신** 동문(71회·석사과정 수료) 11월 건설교통환경신문 기자로 취직하였다.

▶ **김재환** 동문(72회) 9월 한국 썬·교육센터에 취직하였다.

▶ **이성재** 동문(72회) 11월 13일 특남하였다.

II. 동문회 소식

▶ 동문회는 철학과와 공동으로 새해 1월 11일(목) 오후 6시 모교 사회봉사관 툐립홀에서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 동문회는 새해 1월 11일(목) 오후 5시 모교 사회봉사관 툐립홀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 여러분의 참석을 바란다.

철 학 과

I. 교수 동정

▶ **조요한** 명예교수(서양고대철학·예술철학) 교수신문사가 주관하는 「우리시대의 고전」 예술학 부문에 조교수의 『한국미의 조명』(열화당 1999)이 선정되었다.

▶ **이삼열** 교수(사회철학) 12월 7일 4년 임기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초대 원장에 임명되었다.

▶ **곽신환** 교수(동양철학)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도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과제에 「주자언론등이고」가 선정되었다.

▶백도형 교수(현대영미철학) 10월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분석철학회에서 “김재권의 새로운 심신 동일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I. 학부 및 대학원 소식

▶철학과는 제1회 교전어 집중코스를 개설한다. 코스는 2001년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3일(월, 수, 금) 하루에 3시간씩 집중적으로 독일어와 회랍어, 한문을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도는 김인석 박사(독일어), 이상인 박사(회랍어), 신하령 박사(한문)가 수고한다.

교전어 집중코스는 철학 공부에 필수적인 외국어와 교전어를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철학과에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겨울방학마다 개설할 계획이다.

▶철학과에서 발간하는 『사색』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내 학술지 평가」에서 C등급(우수 학술지로 도약단계)을 받았다. A등급(국제적 수준 또는 국제적 수준에 근접)이나 B등급(국내 우수 학술지)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등급에도 포함되지 못한 여타 학술지에 비한다면 그래도 축하할 만한 일로서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수준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대학원 철학과 2001학년도(전기) 신입생은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에 각각 3명과 6명이다: [박사과정] 김범수(프랑스철학 전공) 채순진(현대영미철학 전공) 이경희(예술철학 전공), [석사과정] 김현미(사회철학 전공) 임정택(사회철학 전공) 이정도(사회철학 전공) 정용훈

(중세철학 전공) 정재식(역사철학 전공) 김영욱(중세철학 전공).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회장: 구태환)에서는 10월 12일 김선욱 박사(정치와 인간적 삶의 조건 -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와 박삼열 박사(스피노자의 심신론 - 심신 동일론과 평행론)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는 11월 3, 4일 경기도 일영에서 MT를 갖고, 김광현씨(비판이론과 정신분석학)와 이지성씨(가족과 정의의 만남)의 발표를 들었다.

승실철학강좌

▶철학과는 동문회의 후원 아래 제6회 승실철학강좌를 9월 21일 모교 한경직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강사는 최명관 명예교수였으며 주제는 「철학에의 권유」였다.

제7회 승실철학강좌는 11월 23일 모교 과학관 103호에서 열렸다. 강사는 박이문 교수(미국 시몬즈대학교 명예교수)였으며 주제는 「문학과 철학」이었다.

한편 손영호 동문(36회·광주 양림교회 담임목사)은 3월과 9월 두 차례 승실철학강좌의 개최를 축하하는 전보를 보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주소 업데이트

▶홍정길 동문(36회·남서울은혜교회 담임목사) 서울 강남구 일원동 731 한솔마을아파트 307동 207호 (자택) 3412-0035 [교회] 2226-9968

▶위정식 동문(48회·반포성결교회 담임목사)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1189번지 반포아파트 K
동 305호 (전화) 533-8547/ 011-411-7601 [교
회] 서초구 반포본동 1050번지 반포아파트 J동
24호

▶우성두 동문(48회)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
픽아파트 126동 801호 (전화) 401-5705/ 011-
354-5821

▶김정십 동문(48회)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511동 604호 (전화) 6426-0989 [직장] 2267-
0989

▶이진희 동문(48회 ·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편집부장) 서울 강동구 상일동 교덕주공아파트
624동 202호 (전화) 428-0677 [직장] 427-9111

▶전대홍 동문(48회 · 춘천여고 교사) 강원도
춘천시 은의동 금호3차아파트 302동 1207호 (전
화) 033-242-4449 [직장] 033-256-5297

▶최리균 동문(48회 · 삼일중학교 교목) 경기
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140동
101동 (전화) 031-243-9488 [직장] 031-243-
0041

▶한성환 동문(48회)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7
반포아파트 106동 108호 (전화) 419-8229

▶홍현숙 동문(48회 · 부평중앙교회 담임목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49번지 부평중앙
교회 (전화) 032-522-0580/ 011-303-0581

▶김재옥 동문(49회 · 도봉정보산업고 교사)
서울 노원구 상계3동 불암 현대아파트 104동
905호 (전화) 939-6275 [직장] 3494-4105

▶안홍순 동문(50회 · 해원여자고등학교 교사)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5동 301
호 (전화) 455-4529

▶문현재 동문(51회 · 삼진트랜스 대표) 서울

시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아파트 9동 204호 (전
화) 537-7340 [직장] 529-3323~4, 3463-3314,
3324

▶임형섭 동문(55회 · CBS사회부 기자)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백마마을 202동 302호 (전화)
016-350-0055

▶이순용 동문(57회 · 송실대 감사) 경기도 부
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9-12 2층 3호 (전화)
032-666-2655, 2659

▶문시영 동문(59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충
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남서울대학교
(전화) 041-580-2081/ 017-394-9858

▶조기홍 · 김정숙 동문(60회) 경기도 고양시
일신구 주엽1동 강선마을 보성아파트 1509동
1105호

▶김성은 동문(61회)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7
번지 주공고층아파트 913동 1502호 (전화) 428-
5873/ 011-248-6728 [직장] 441-6710, 6711

▶최의경 동문(61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
선동 주공 3차 아파트 69동 403호 (전화)
031-223-9263/ 017-679-8522

▶김지현 동문(63회 · 모교 교목실) 서울 금천
구 가산동 149-48번지 영화빌라 2-602 (전화)
863-8769/ 016-716-0766 [직장] 820-0125

▶홍기숙 동문(63회 · 파리8대학 박사과정)
166. Rue St-charles, 75015 PARIS, FRANCE
(전화) France 7 01 45 54 15 17

▶최성섭 · 윤미정 동문(64회) 1805 Ferguson
CT. S, #E, Fort Worth, TX 76115, U. S. A.
(전화) 817-927-5276

▶김성호 동문(65회 · 뉴욕한인봉사센터) 149
W. 24th. St., 6th Fl. New York, NY 10011

(전화) 212-463-9685

▶장재훈 동문(65회·무협소설 작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625-1 (전화) 031-376-0538

▶김성진 동문(66회) 서울 구로구 고척1동 동아한신아파트 104동 504호

▶황승현 동문(66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01-11호 (전화) 912-4507

▶모정희 동문(67회)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318-18 성우연립 101호 (전화) 2243-2354

▶윤현우 동문(68회·석사과정 졸업) 181 North Richmond Drive APT F Anaheim CA 92801 (전화) 714-761-4584

▶장미성 동문(68회·석사과정 졸업) 20 Englewood Ave. Buffalo, N. Y., 14214 U. S. A. (전화) 716-834-6904

▶노윤식 동문(68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벽산아파트 1동 805호 (전화) 016-270-9347

▶권오신 동문(69회)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 507동 502호

▶한호석 동문(71회·한마음교회 목사) 서울 중구 신당동 160-27 (전화) 2235-3659

▶심상수 동문(71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737 한성빌라 401호 (전화) 019-304-6019

▶김재환 동문(72회)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50-108번지 (전화) 017-226-2021

▶김현미 동문(72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41-194 (전화) 825-3702/ 016-706-8369

▶박신영 동문(72회)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80-27 서원빌라 가동 302호

▶김범수 동문(대학원)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329 동방파레스 바-101 (전화) 889-6064

기 타

I. 『思索』지 배부

▶철학과에서는 그 동안 발간했던 『사색』지 잔여분을 원하는 동문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현재 배부할 수 있는 『사색』은 13호(1997)부터 15호(1999)까지이다. 원하는 동문은 철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기 바란다.

II.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동문 동정」 중 이상강 동문 미망인의 연락처가 033-637-2679가 아니라 033-633-2679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계간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0 겨울 (통권 제10호)

2000년 12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이 성 준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